

국힘 전대 이어 원내대표 경쟁 본격화

선거일 늦춰져 내달 하순쯤 선출 김학용·박대출·윤재옥 등 거론 'PK대표·친윤 지도부' 등 변수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 선임에 따라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의 물밑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차기 원내대표는 김 신임 대표와 함께 집권여당의 '투톱'을 이룰 윤석열 정부 2년 차 국정과제 입법을 뒷받침하고 내년 4월 총선 승리의 밑그림을 그리는 막중한 임무를 안게 된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요영 원내대표 후임을 뽑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내달 하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작년 9월 선출된 주 원내대표가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올해 4월 8일까지만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초 원내대표 선거는 4월 초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주 원내대표가 카운터파트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4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 뒤 동반 사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당내에서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으면서 선거일은 보름 정도 늦춰질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4월 하순 방미 일정 등을 고려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준비하는 의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후보로는 김학용(4선·경기 안성), 박대출(경남 진주갑)·윤재옥(대구 달서을·이상 3선) 의원이 꼽힌다. 이들은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굳히고 의원들과 '식사 정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4선인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 3선의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도 차기 원내대표에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김기현

대표가 '부산·울산·경남'(PK) 출신인 점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총선 승리가 최대 목표인 만큼 '투톱'의 지역 안배 측면에서 김 대표와 같은 PK 출신을 원내대표로 세우는 것이 부담이라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대구·경북은 이미 홀대론이 나온 데다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정치공학적인 지역 안배론에서 벗어나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대야 투쟁력과 돌파력을 원내사령탑의 주요 능력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곧 발표될 사무총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 인선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변수로 꼽힌다.

이들의 지역이나 계파 등에 따라 유력 주자가 바뀔 수 있다.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전원 '친윤'(친윤석열)인 점이 '유권자'인 소속 의원들 표심을 흔들면서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내에서는 '투톱'을 모두 친윤으로 채워 완벽한 '원톱'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원내사령탑은 친윤 색채가 상대적으로 옅은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친윤 의원들의 결집이 이뤄지고, 주류에 불만이 있는 의원들이 모여 이에 맞서면서 표 대결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 대표, 김재원·김병만·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연합뉴스

국힘 김기현호 당직 인선 마무리 수순...친윤계 전면 배치

사무총장 이철규 의원 유력 당정·대야 관계 정립도 착수

국민의힘 '김기현호(號)'가 본격적인 출항 준비에 바쁜 주말을 보내고 있다.

지난 8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김기현 대표는 급선무인 당직 인선 작업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당정 및 대야(對野) 관계 정립에도 본격 착수한다. 김 대표는 오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 당직 인선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목표로 당선 후 첫 주말에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당 안팎 의견 수렴에 집중했다.

일단 주요 당직에는 친윤(친윤석열)계 전면 배치로 가닥이 잡힌 분위기다.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책임질 핵심 당직인 사무

총장에는 친윤계 재선 이철규 의원이 확실시되는 기류다.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에도 각각 친윤 초선인 박성민, 배현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단은 원내에선 이만희·강민국·유상범·조은희 의원 등이, 원외 뒤편으로는 윤희석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김예령 전 대선 선대위 대변인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에 이어 주요 당직까지 자칫 친윤 일색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김 대표 고민이 될 수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0일 소속 의원들과의 첫 상견례 격인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선거 구호였던 '연표랑'(연대·포용·랑평)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수도권 3선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을 정책위 의장 혹은 지명직 최고위원에 발탁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맥락에서 친윤계로 꼽히지만 비교적 계파 색채가 옅다는 평가가 나오는 3선 박대출·윤재옥 의원 등의 중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대표는 당직 인선과 함께 이번 전당대회에서 경쟁한 안철수 의원·전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의 회동도 추진하는 등 당내 결속을 위한 행보도 서두를 방침이다.

대통령실 및 정부와 틈워크 강화에도 시동을 건다.

당장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가 만찬 회동을 한다. 사무총장과 대변인단 등 새로 뽑힌 주요 당직자도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민주 "윤석열 검사왕국 막무가내 형태 저지"

"얼마나 죽어야 칼춤 멈출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총력을 다해 '윤석열 검찰왕국'의 막무가내 형태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당 검찰특별재정위원회(대책위)는 지난 11일 낸 입장문에서 "검찰이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을 완전히 장악해 '윤석열 검사왕국'이 완성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정순신 낙마 사태'를 거론했다.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 탓에 낙마한 것은 결국 검사 출신 일색의 인사 검증 라인이 '제식구 감시기' 식 행태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인사 추천 책임자는 (검찰 출신인) 대통령실 복두구 인사기획관과 이원보 인사비서관이고,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할한다"며 "2차 검증을 하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도 검찰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요직 역시 검찰 출신이 장악했

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한 장관을 비롯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언급한 뒤 "검찰 일색의 인사 추천·검증을 거쳐 완성된 '윤석열 검사왕국'의 면면은 화려하기 그지없다"며 "만사검통"이라는 말이 허장성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한 집안이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요직을 장악한 사례는 박정희·전두환 쿠데타 군부 세력 이후 윤석열 검찰 세력이 처음일 것"이라며 "하나회 등 군인조직이 만든 부패와 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것도 감압수사 때문이라며 검찰을 향한 맹비난을 이어갔다.

서용주 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은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야 포악한 수사를 멈출 것인가"라며 "이것이 검찰의 수사 방식이라면 망나니 칼춤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쏘아붙였다.

서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수사를 빙자한 사법살인을 멈추고 피 땀을 칼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박지원, 양산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

"건강하고 행복해 보여"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경남 양산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만났다.

박 전 원장은 지난 11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어제(10일) 모처럼 양산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찾아 인사를 했다"며 "건강해 보였고 잔잔한 미소는 변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편안한 정비지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의 사진 한장을 올렸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이기는 민주당, Again(어게인) 부산'에 특강을 위해 방문하는 길에 양산을 찾은 것이다.

문 전 대통령 내외를 만났다는 게시글에는 정장적인 언급 없이 문 전 대통령 내외의 근황만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가꾼 채소밭에 대해 "손수 가꾼 채소밭도 상상했다"고 언급했다.

/최민일 기자 cki@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혁신 공천안 마련 총선 승리 디딤돌 놓을 것"

민주 공천 TF 단장 맡은 이개호 의원

민주당 '2024 총선 공천제도 TF' 단장을 맡은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12일 "민주당 정체성과 높은 경쟁력을 가진 후보 선출 기준을 마련,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디딤돌을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호남 민심 등 공천 혁신을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겠다"며 "민주당이 확실히 놓은 시스템 공천을 기반으로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당내 정치혁신위원회에서 거론된 공천 혁신 방안에 대해 이 의원은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혁신의 내부 논의 내용이 공천 방안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이 공천



제도 TF 단장을 맡은 데는 이재명 대표의 통합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비명계에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면서 공천에서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 의원은 "공천 안이 마련되면 의원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은 뒤, 최고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 공천제도 TF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해 4월 10일까지 22대 총선 공천제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총선 공천제도 TF는 이개호 의원을 단장으로 부단장에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맹성규, 문진석, 송옥주, 조승래, 고영인, 김영배, 이해식, 이소영 의원, 배재정 부산사상구지역위원장 등 원내·외 11명으로 구성됐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전원주택 (1채) → 7,000만 (토지 분양 중) 장성댐 5분, 광주 20분, (6M도로 접)	상가매매(상무지구)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① 세컨하우스 ② 소형 주택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④ 주말 하우스 최고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	▶ 중심 상업지구 (유형적합) ▶ 유흥가능 (전용 100평) ▶ 시세 - 10억 ▶ 급매 - 7억 (용4억)
▶ 경매 물건 추천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 토지분양 → 전원주택 토지 (100평, 150평, 200평) </div>	(보3천, 월수익 380만)
010-2614-9801	010-6670-9800	